

윤석열,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없이 기존 주장 반복

생일날 군사법원 증인 출석…前특수·방첩·수방·정보사령관 보며 사과

타락한 대의제 알리기 위해 복 친 것"…체포조 14인 명단엔 "뒤늦게 알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네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독재와 묻지마 졸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복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 국민들에게 국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타락한 대의제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견제와 비판을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으며, 12월 2일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계엄을 빼서 지시 계엄"으로 아주 연성으로 생각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전 장관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에 대해선 "보도를 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물어보니, 동향 파악 차원에서 소재를 확인해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을 도대체 왜 했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첩사에 대한 인사 조치엔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련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재판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군검찰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도 오늘 재

판에 온 것 같은데, 절 위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군검찰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라 기소된 사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하고, "과한 음모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은 이날 종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변호인 접견 일정을 이유로 조기 퇴정을 요청하면서 일찍 마쳤다. 군사법원은 이날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군사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만으로 알려졌다.

이재봉 기자

SH,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항상하 사장, "주택 공급 넘어 출산·양육 부담 덜어주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역할 확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SH는 '미리내집' 입주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복잡하게 분산돼 있던

각종 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자녀가 만 12세까지 필요한 맞춤형 출산·양육·보육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정책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양육수당, 보육료 등의 정보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한다.

입주민이 육아 지원 정책을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정보를 찾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입주민 간담회를 열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은 미리내집 입주민들에게 알림톡으로 전달하고, SH 블로그에 게시한 팬플릿(https://blog.naver.com/together_sh/224107279978)의 QR코드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황상하 SH 사장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안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사업 준공

국내 최대 하루 10만㎥급 시설 준공, 지역 숙원 해결 및 물 공급 체계 강화



어지며 공장 가동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번 시설은 역삼투 기술로 바닷물을 담수화해 강우에 의존하던 수자원 확보 방식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시설에 국내 기술로 만든 저에너지형 역삼투막을 비롯해 에너지회수장치, 고효율 수처리 기자재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질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약 20km 구간을 연결하는 공급 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물 걱정을 덜고, 산업이 물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준공은 기후위기 시대 지역과 산업에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증을 마련한 것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물산업에서도 전략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해수담수화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혁신과 운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삼성물산, 4700억원 규모 호주 HVDC 공사 수주

호주 빅토리아주와 타즈메니아주를 잇는 고압직류 송전 설비 공사

최적화된 설계안으로 높은 평가… 뛰어난 기술력과 수행 역량 입증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 High Voltage Direct Current)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메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Marinus Link Pty Ltd)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메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마리너스링크 HVDC 사업을 통해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



유한 타즈메니아주와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DT INFRASTRUCTURE)와 조인트

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와 변환소 공사 패키지를 수주했으며 총 9400억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삼성물산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

는 ECI과정에서 최적화된 설계안과 UAE HVDC 사업을 바탕으로 쌓은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 김성준 부사장은 “이번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는 호주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7월 약 2000억원 규모의 호주 빅토리아주 나와레(Gnarwarre)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하는 등 올해에만 호주 에너지 시장에서 1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삼성물산은 2023년 '멜버른 재생에너지 허브(MREH)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호주 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재까지 2.9GWh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수행 중이다.

심귀영 기자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선다!

전국 30개 거점 대학과 함께 1,500명 청년 창업가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

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사업 첫해인 2022년부터 4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민·관·학이 협력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현재까지 누적 교육 인원이 2471명, 5050명에 달하며, 이 중 359팀이 창업에 성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동력이 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1,500명(763개 팀)에게 기초 창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6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각 거점 대학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 창업 현장 교육을 총 8회

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62개 우수 팀에는 각 300만 원의 사업 실행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전담 코칭 ▲업종별 선배 창업가와 1:1멘토링 ▲실습 중심의 마케팅 교육 등이 제공됐다. 이 밖에도 권역별 대학협의회 개최 및 기존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참여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예비 창업가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에서는 해파리를 활용한 산불피해 토양 복구용 유기질 비료를 창업 아이템으로 발표한 'OCEAN FUTURE(오션퓨처)'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을 수상한 팀에는 창업지원금 3,000만원이 전달됐다.

이송원 기자

2025년 농어촌물포럼 제3차 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모색

‘재난 대응 체계 개선해 상습침수 막아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7일 충북 오송에서 '2025년 농어촌물포럼 제3차 토론회'를 상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농어촌용수 관리'를 주제로, 정부, 학계, 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상습 침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맹승진 충북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인중 사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

체중앙연합회장의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지며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상습 침수 피해 예방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2025년 쉼전의 의의'를 통해 올해 2차례 진행된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광야 충남대 교수는 '뉴노멀 기후변화 농경지 상습침수의 원인과 대책'에서 부여군의 사례를 들며, “농경지 침수피해 최

소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자동화 배수장 운영체계 도입과 과감한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박진현 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농업생산기반분야 재난 대응 강화방안’ 발제에서 공사의 재난 대응 사례와 앞으로의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용주(취삼안) 부사장은 ‘복합 영농지역의 배수로를 고려한 배수체계 분석기법’ 발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상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부처, 공사, 학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상습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난 안전 관리를 고도화해야 한다”라며,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 배수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물관리에 농업 분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진 기자